

 **대구광역시의회 보도자료**

**함께하는 민생의회**  **행동하는 정책의회**

제공일자	2022. 12. 21. (수)	
정책분석 담당관	장찬호	803-5110
정책연구팀장	임창효	803-5111
담당자	강순경	803-5176

## 지역 소·부·장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 마련

- 이영애 의원,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

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(교육위원회, 달서구1)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에서 대구지역의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「대구광역시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을 대표 발의하여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.

-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지난 10월 ‘제10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’를 통해 그간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對(대)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 까지 고려해 150대로 확대하고, 중점 지원 방안을 구축하여 기술독립 및 소·부·장의 자립을 목표로 정함에 따라, 대구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.
- 조례의 주요 내용은 △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△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지원, 실태조사 △기업지원 등, 지원사업의 평가 △입지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.
- 이영애 의원은 “대구시도 지난 2020년 산자부에서 발표한 소재·부품·장비 2.0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자립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114억 원을 투입해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분말소재기

반 핵심소재부품의 기술·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”며, “대구지역의 소재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”고 설명했다.

- 이어, “대구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을 확보하여, 관련 산업의 세밀한 제도적 지원으로 최근 경기 악화로 힘든 시간을 보낼 지역의 기업들이 숨통이 트일만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